

300-5-131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13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金永斗는 공산주의자 洪南杓의 지도로 공산주의 연구에 열중했으며, 1934년 신 사상연구회를 조직·가입하고, 좌익문헌을 탐독하며 고향 청소년의 지도에 노력 하였다. 그 후 조선청년총동맹 세포가 되고, 공산청년동맹사건 관련 李星出과 협의하여 楊平농민조합을 결성,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金永斗는 卞洪奎 등과 회합하고, 노동조합 농민조합 등을 조직하여 투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선동했다.
- 卞洪大는 楊平청년동맹, 中央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사회운동에 노력하고, 조선의 공산화와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하였다.
- 金元經은 좌익서적 탐독 후 楊平청년동맹에 가맹, 사상운동을 했으며, 농촌의 공산화에 노력하였다.
- 李貴童은 金永斗의 지도하에 楊平청년동맹 간부로 공산주의 실천운동에 노력하며 赤色농민조합 준비회를 조직, 조선의 공산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 沈兼文은 공산주의 이론연구와 실천운동을 위한 불온문서를 배포하여 검거된 후 구류 10일에 처해진 바 있으며, 赤色농민조합조직 준비위원회의 책임자가 되어 지하운동을 하여 왔다.
- 尹寧燮은 光州학생사건 관계자로 훈계, 방면된 바 있으며, 그 후 좌경서적을 탐독하여 공산주의에 공명하고 金元經 등의 지도로 실천운동에 참가 했다.
- 金貴星은 卞洪大의 중용으로 양평적색농민조합에 가입하여 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이 문서철에는 1934년 7월 11일 金聲大·金貴星·李貴童 등의 피의자 신문조사 2회부터 기록이 있다. 동일일에 權重微의 聽取書가 작성되었다. 7월 12일 金永斗의 2회 신문조사가 있었고, 7월 3일 李載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7월 10일 종로경찰서의 요구로 金載春 외 20명의 청취서가 작성되어 보고되었다.
- 청취서 작성자는 다음과 같다 : 李昌奉 4월 10일, 金麟杓 4월 9일, 洪鳳學 4월 13일, 金正默 4월 15일, 崔麟福 4월 10일, 崔昌鉉 4월 17일, 張雲龍 4월 8일, 李星吉 4월 22일, 尹富成 4월 17일, 李範錫 4월 14일, 徐載鎬 4월 11일, 金五石 4월 17일, 朴圭瓚 4월 12일, 金在誠 4월 7일, 權寧世 4월 23일, 金榮培 5월 7일, 尹錫奉 5월 7일, 金德來 5월 7일, 安明成 3월 29일, 金濟春 4월 22일, 朴光麟 4월 22일, 張成奉 4월 22일, 鄭源福 4월 10일, 安必承 4월 19일, 禹上龍 4월 18일 등 이다.
- 1934년 7월 14일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계속되었다. 14일 崔永昌, 16일 李星出(一名 李正煥) 1·2회, 17일 池玉成·朴壽昌·朴承龍, 7월 27일 金貴星 3회, 尹寧燮·梁承文·崔永昌 2회, 李正煥 3회, 金永斗 3회, 金元經 2회, 朴壽昌 2회, 李貴星 3회, 池玉成 2회의 신문조사가 있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의견서에 활동자들의 활동상황이 기록되어 있다.